

200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연설

존경하는 이수성 회장님과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200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거듭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의 시·도 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여러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명실상부한 국가적 운동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운동임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잘 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근면·자주·협동의 정신으로 가슴 벅차 하며 삼과 팽이를 들고 길 넓히고 부뚜막 개량하는 일에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갈구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새마을운동이 곱지 않아 보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평가할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러한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훌륭하게 계속돼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을 100배나 증가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1945년을 전후하여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발전의 바탕에 경제적 성공이 있고, 경제적 성공의 바탕에 새마을운동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은 성공의 역사입니다. 정상회의를 하러 해외에 가면 정말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우리 새마을운동을 부러워하고 칭찬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수성 회장님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 고난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새마을운동을 앞장서 이끌고 있습니다. 시·도 지사, 시장 여러분 중에도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에 맞서 투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두번째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시대를 넘어 전 국민의 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고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운동을 변화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목표와 전략으로 지금도 국민과 함께 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바른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지금은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선진국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성큼성큼 달아나고 있고, 후발국들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또다시 변방의 역사를 살아야 합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할 때입니다. 안으로 내실을 다지면서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해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30여년을 이어온 새마을운동이 한차원 높은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화합이 절실합니다. 분열과 대립, 불신과 미움을 이대로 두고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역량 한번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아쉬운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해법을 찾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신뢰와 공정으로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화의 창구도 항상 열어 놓겠습니다. 지금의 여러 사회갈등 현안들도 대화하고 설득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막고 자기 주장만을 해서는 모두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서로의 발목을 잡는 공멸의 길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라 위한 일이라면 늘 한마음으로 뭉쳤던 우리들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이 새로운 협력의 문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수도권은 너무 과밀하고 집중돼서 고통을 받고 있고, 지방은 소외돼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이대로 두고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지방이 독자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발전의 역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전략만이 수도권과 지방을 다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을 발전시켜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과 지방대학 육성, 지방의 생활여건 개선, 행정수도 이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을과 직장이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시대가 요구하는 일을 앞장서서 실천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신뢰 또한 큼니다. 화합과 개혁의 구심점으로서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십시오. 지도 열심히 성원하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과 대회사를 통해 여러분이 내건 '새마을, 새정신, 새나라'라는 새 목표가 그야말로 분권과 자율,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되고, 또 큰 성공을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